



발간자료

• **퀀트 10월 Risk Signal:** 지난 9월 선행지표가 올해 처음 반락하며 경기 확장에 대한 RISK-ON 강도도 추세 이탈(-0.5%p) 수준으로 약화돼 연중 최저치를 기록. 작년 5월부터 이어진 경기 확장 모멘텀이 생산·소비·투자 동반 부진 영향으로 약 1년 4개월 만에 수축 전환하며 첫 변곡점이 발생. 국내 경기는 상반기 팽창 → 8월 고점 → 10월 수축 전환으로 본격적인 피크아웃 국면에 진입했으며, 흐름을 되돌릴 핵심 변수는 이란전쟁의 종전으로 판단

(계량분석 김경훈)

• **퀀트 10월 Style Rotation:** 지난달 1의 역수로 보는 PUT/CALL RATIO 둔화 이후 이번 달 매크로 변수는 정체되며 뚜렷한 방향성 부재. 이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변동성이 제한된 횡보·관망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. 최근 2~3개월간 국내 증시 조정으로 업종 전반의 Equity Duration이 축소된 가운데 탐다운 시그널도 정체돼, 색깔 없는 바벨 전략을 권고

(계량분석 김경훈)

• **오리온/BUY/18만원:** 8월 합산 매출액 YoY+8.7% 기록. 베트남 부진은 일시적 요인으로 7~8월 합산 성장률은 +9.3% 기록. 다만, 환 효과축소로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. 9/30 기준 12M Fwd P/E 8.3배까지 하락. 이익체력 감안시 하방리스크 제한적, 저점매수 개시해도 되는 시점. '26년 첫 중간배당 시행. 배당기조가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임을 감안해 현재주가 기준 연간 배당수익률 3.5~4.4%.

(음식료/통신 이다연)

• **건설·AI·인터넷(데이터센터 콜라보):** AI 필수재화로 '26년 6월 전세계 일간 토큰 처리량 360조개(+487% YoY), 국내 DC 용량 '31년 최소 10.4GW 전망. 인터넷/SI 기업은 캐시카우와 외부 투자 유치로 리스크 분산. 10.4GW 건설 환산 시 연평균 9.7~17.4조원 물량, 기성 감소 구간 단기 실적 기여. 정부 의지와 대기업 발주처 재무 여력이 프로젝트 안정성 담보. Top-Pick NAVER(BUY, TP 40만원): 빠르면 1Q27부터 자체 AI DC 매출 반영, '27년 엔터프라이즈 매출 2.2조원(+239.9% YoY). Top-Pick GS건설(BUY, TP 48,000원): DC 수주잔고 매출 '26년부터 본격화, GS그룹 AI 인프라 투자로 추가 수주 임박. 삼성물산도 관계사 발주 수혜 관심

(건설/부동산 박영도, 인터넷/게임/레저 김혜영)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·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.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본 자료는 '나눔스퀘어'와 '아리따 글꼴'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
투자등급 비율

BUY : 93.5%	HOLD : 6.5%	SELL : 0.0%
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투자등급 관련사항

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

- BUY: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+15% 이상
- HOLD: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-15% 이상 ~ +15% 미만
- SELL: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-15% 미만

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

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,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

- Ov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- Neutral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- Und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
주)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